

眞如, 제법을 연기하는 주체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이 진여(眞如)라는 말이다. 참되고 한결같다는 뜻인 이 말을 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다.

원래 진여란 범어 'Tathata'를 번역한 말로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상주불변의 본체를 두고 쓴 말이다. 사유가 미칠 수 없는 성품자리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보(正報)인 근신(根身) 쪽에서는 불성(佛性)이라 하고 의보(依報)인 기계(器界) 쪽에서는 법성(法性)이란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진여를 증생의 측면에서는 불성이라 하고 사물의 측면에서는 법성이라 한다.

대승경전에서는 이 진여를 경전마다 달리 표현한다. 능엄경에서는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라 하고 금강경이 속해 있는 반야부 경전에서는 반야(般若)라 하고 원각경에서는 원각(圓覺),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一眞法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진여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말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음식

의 맛을 아무리 말로 설명하여도 말이 자체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진여를 기신론에서는 말을 떠난 진여와 말에 의해 설명되는 진여를 구분 이 언진여(離言眞如)와 의언진여(依言眞如) 둘로 설명한다. 말을 떠났다는 것은 진여에 대해서 이론을 세울 수 없으며, 사상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기신론 본문에는 이렇게 질문을 한다.

불변의 본체 의미하는 '진여'
대승불교서 가장 이상적 개념
"망령된 생각 벗어나야 증득"

"진여가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진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다. "만약 일체 법 곧 모든 존재가 비록 말로써 설명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생각하여도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알면 진여를 따르는 것이며,

망령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진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것과 망령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선가에서 곧잘 말해온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이라는 말이다. <원각경>에도 이렇게 설한 대목이 있다.

"사유심으로 여래의 원각경계를 헤아리는 것은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다."

불교는 사유를 넘어선 무분별지를 제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이르는 것이 깨달음이다. 다만 기신론에서는 깨달음을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고 있다.

말을 떠난 진여를 말을 의지해 설명할 때 진여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다. 사실 그대로 비워진 상태로 더할 나위 없이 실제 그대로는 나타낸 것(如實空)과 또 하나는 사실 속에 또 실제 그대로 비워지지 않은 것(如實不空)이다. 진여가 공과 불공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공하다' 곧 '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진여는 본래부터 오염된 법과는 관계 없는 것이며 차별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허망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자체의 성품은 있다고 보는 상황도 아니며, 없다고 보는 상황도 아니다. 그

런가 하며 있다고 보는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며, 없다고 보는 상황이 아닌 것도 아니다. 또 하나로 된 단원론적(單元論的)인 상황도 아니며 여럿으로 된 다원론(多元論的)인 상황도 아니다. 동시에 단원론적이면서 다원적인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증생이 망령된 마음으로 찰나찰나 분별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진여에는 본래 망념이 없었다는 뜻에서 공(空)이라 한다. 망념이 없으면 비워졌다 할 것도 없는 것이다. 비워지지 않는 불공(不空)이란 망념이 없는 상태 곧 참마음 그대로가 항상 변하지 않고 깨끗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지 않았다 한다. 공해지면 그 공해진 속에 공하지 않는 성질이 내재해 있어 이른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도리가 진여 자체에 갖춰져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공과 불공의 관계는 말의 개념은 다르나 그 체는 한가지라는 것이다.

마치 그릇이 비워 있으면 비워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망념을 여의면 여인 그곳에 모든 것을 정화하는 깨끗한 법이 충만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소모가 되지 않는 공덕, '무루성공덕(無漏性功德)'이라 하였다. 기신론에서는 이 진여가 생멸로 전환되면서 제법을 연기하는 주체가 된다. 그리하여 진여연기설 혹은 여래장 연기설이라 말해 왔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불교는 오늘의 종교다

글짓기를 잘하는 어느 대학교수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날 혼자서 차를 몰고 강원도의 어느 해변마을에 이르렀다. 어느 어촌마을에 차를 세우고 요깃거리를 찾아 식당 몇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글로 큼직하게 다 음과 같은 글이 입구의 문에 붙어 있었다.

'오늘은 현찰입니다. 내일은 외상이 가능합니다.'

식당 주인의 설명인 즉 세상에는 오늘 뿐이며, 자고나도 언제나 오늘이므로 365일 현찰이라는 철학교수를 닮은 현찰거래에 아낌없이 박수를 쳐 주었다는 글이었다.

그렇다. 살아 움직이는 우리에게 오로지 오늘뿐이다. 식당 주인의 설명처럼 자고나도 오늘뿐인 것이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앞다져 근심걱정하지 말 일이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의 주인공이

중심으로(神本主義) 모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人本主義) 펼쳐지는 종교다.

어느 절대자의 능력과 구원에 의해 생명력을 얻는 타력신앙(他力信仰)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마음 개발에 의해 스스로를 다듬어 완성해 가는 자력신앙(自力信仰)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고 험악이는 존재이다.

방황할수록 지름길을 빨리 발견한다는 마오쩌둥의 어록처럼 흔들리면서 철이 들고 험악이면서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굵고 비어있으며 막혀있기에 종교와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대화의 단절이 외로움을 키우고 이해의 결핍에서 갈등과 대립의 칼날이 날로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물을 마셔도 가시지 않는 원초적인 목마름, 버스와 배를 타지 않아도 세상이 뱅뱅 도는 심한 멀미, 두 눈을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 닫힌 문 열고 주인공으로 살자

되어 당당하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 일이다. 쏠쏠하게 좋아들거나 토끼눈이 되어 놀라고 두려운 참새가슴으로 살지 말 일이다.

법회장소에서 첫 말씀을 질문으로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전생이 있다고 믿으세요?" 답은 '예'이다.

"내생이 있다고 믿으세요?" 대답 역시 '예'이다.

그럼 전생이 행복하길 원하나요? 아니면 내생이 행복하길 원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현생이 행복하길 원하나요?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명쾌하게 정해져 있다. 현생의 행복 쪽에 대답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짓궂은 감이 있 겠지만, 그 흐름을 타고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어제가 중요하세요? 내일이 중요 하세요? 아니면 오늘이 중요하세요?" 역시 대답은 착하게도 하나의 정답 쪽으로 몰려있다.

지나간 어제보다 다가올 내일보다 생생한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신(神)을

멀건이 뜨고 있어도 온몸을 휘감고 밀려오는 가위눌림, 혼자 있으면 홀수라서 외롭고, 짝이 있고 셋 넷이 곁에 있어도 가슴 속에 구멍이 송송 난 듯한 이 공허감. 이 허무감이 종교를 만들고 신앙의 돌레를 넓혀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떠한 종교이며 어떠한 가르침을 펴고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행복과 자유에 이르게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불교는 전생을 위한 종교도 아니고, 내생을 위한 종교도 아니며, 현생의 오늘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이다. 전 생 탓으로 체념하게 하거나 내생 따위로 현생을 담보물처럼 가볍게 하지 않는다.

본래, 동·서·남·북은 없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동·서·남·북의 중앙이며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선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지혜로 가득 차 있다. 닫힌 문을 열고 보면 행복과 자유가 햇살처럼 쏟아지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움직이는 진리로 살 수 있을 터니까.

보살행 근본이자 무량한 공덕의 공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④ 보시의 수승함

施勝品第一(시승품제일)

敬禮正覺 大悲哀世尊
(경례등정각 대비에세존)
因彼起正法 三界中勝濟
(인피기정법 삼계중진제)
衆中第一尊 無量功德藏
(중중제일존 무량공덕장)
菩薩本所行 我當說少分
(보살본소행 아당설소분)
我今哀愍彼 開演妙施門
(아금애민피 개연묘시문)
一切讚賢士 應當歡喜聽
(일체제현사 응당환희청)

번역

보시의 수승함에 대한 품 제 1

평등한 바른 깨달음과 대자비로 불쌍히 여기시는 세존께 공경의 예를 드리노니, 그 바른 법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삼계(三界) 가운데서 진실로 건지십니다.

많은 가르침 가운데 제일 존귀하고, 무량한 공덕의 공간이며, 보살의 행할 바 근본이기에, 제가 마땅히 적은 부분이라도 설명하나이다.

제가 지금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미묘한 보시의 문을 열어 보이노니, 일체의 모든 어지신 이들은 응당 기쁘게 들으소서.

해설

<대장부론>은 총 29품으로 이루어진 짧은 논서다. '대장부(大丈夫)'는 뜻이 지극히 큰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대영웅'을 우리는 '대웅(大雄)'이라고 부르며,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대웅전'이라 한다.

대장부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께서 <칠불경(七佛經)>에 간략하고도 명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대장부는 이와 같이 지혜가 있고, 이와 같은 계를 지니며, 이와 같은 선경이 있으며, 이와 같이 해탈하였으며, 이와 같은 위와 덕이 있으며, 이와 같이 무리가 함께하며, 세상에 내려와 증생을 이롭게 하며, 심히 희유하며 불가사의 하나라. (如是大丈夫, 有如是智慧, 如是持戒, 如是三摩地, 如是解脫, 如是威德, 如是種族, 降世利生, 甚爲希有不可思議)' 라고 하였다.

이 <대장부론>을 통해 제바보살이 하고 싶은 말도 <칠불경>에서 설하신 내용

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장부로서의 삶을 보살의 마음인 자리아타(自利利他)에 중점을 두었으며, 육바라밀의 '보시'를 주제로 삼아 논설하였다. 보시는 널리 베푸는 마음이며, 번뇌의 가장 큰 요인인 탐욕심을 여의는 실천적 방법이다.

그런데, 보시라는 말을 하면, 탐욕심이 많은 증생은 좋아할 리가 없다. 나를 위해 먼저 쓰고, 혹은 남는 것이 있으면 보시하는 삶이 증생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다 같은 욕심을 어느 세월에도 채우며, 언제 만족함을 알아 보시하겠는가.

그래서 제바보살은 <대장부론>의 제일품을 '보시에 대한 수승함'에 대한 설명과 찬탄으로 글을 시작하였다. 삼계(三界)의 고통 가운데서 증생을 건지는 부처님의 길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보살의 근본이며, 행할 바이기에,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한다고 토로하였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옥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3개월 선납시 10% 할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1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6년 1월 중

매주 (월, 수)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중·고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